

목어

바로 봐야 바른생각

아전인수란 말이 있다. 어떤 현상을 지각할 때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받아들여주는 속성을 두고 이른 말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한달 이래 세상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 생사를 모르던 이산가족이 남북에서 생사여부가 확인되고, 지금까지 편향적으로 인식되었던 북쪽 지도자들의 인상도 뒤바뀌어지는 혼돈속에서 한달을 넘기다 보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실제상황이 과연 무엇인가 하고 가다듬어 보게 된다.

남북이 대치하여 싸운지 50년의 세월 동안 이념과 거리가 멀었던 많은 사람들의 회생도 있었고 이념적인 다름으로 생사를 달리 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모든 사실들을 놓고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자던 그 만큼 우리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할 부분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흔히 우리들은 언어가 같고 습관이 같고 한민족이니가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이 또한 아전인수식의 지각이 아닐까 싶다. 너무 정서적으로 합입할 것이 아니라 좀더 이성적인 자세로 현실을 담담하게 지각할 필요가 있다. 한 핏줄 한 습관을 지닌 우리들이라고 하더라도 50년 넘게 이질적인 환경과 이념 속에서 적개심을 갖고 살아온 서로의 이질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단순히 핏줄이 같고 하는 식의 감정에만 호소할 일이 아니다. 남북교류가 모처럼 물꼬를 댔지만 마음 한구석에 무엇인지 모르게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위정자들의 서두르는 행동양태가 혹시 비이성적 기준을 갖고 진행되는 중구난방은 아닐런지 하는 기우 때문일 것이다. 감격스런 변화라는데 이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적 사실을 아전인수식의 속성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상황을 바로 보는 정견(正見)이 있어야 바로 인식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근후(이화대 교수·불자 논설위원)

어린이 포교 없이 불교미래 없다

‘청소년 종교의식 조사’로 본 포교 필요성

불교를 신봉하는 청소년이 왜 타종교에 비해 숫적으로 열세일까?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나왔다. 바로 열쇠는 어린이포교의 취약함.

조계종 포교원의 7월 27일 ‘청소년 종교의식’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종교를 갖고 있는 청소년의 83.7%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종교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공 심는데 공 나고, 팔 심는데 팔 난다’는 지극히 자명한 이치를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어린이 포교를 통한 사한 채 청소년포

로 밝혀진 바 있다.

법회참가 평균인원도 96년 53.33(어린이)명과 31.5(청소년)명에서 45.33명과 25.2명으로 각각 15%, 19%가 감소했으며, 이미 어린이법회가 없어지고 청소년법회만 남아 7~8명의 회원으로 간신히 명맥을 잇고 있는 사찰 4곳도 2~3년내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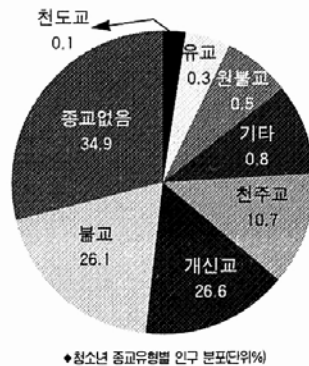
어린이, 청소년법회가 줄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찰의 인식부족과 지도교사 확보의 어려움, 사찰지원 중단, 불자부모의 개인적 실행행태 등을 꼽고 있다. 최근 어린이 포교가 활성화돼 있는 서울의 도심포교당과 수도권의 모 사찰에서 주지스님이 새로 바뀌며 어린이법회가 해체될 위기에 직면하는 등 주지스님의 성향에 따라 법회 존재의 기로까지 서는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교리공부와 포교 등 내용과 실천을 담보해주는 프로그램이 미진하여 불교 청소년의 경우 불교적 가치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결국 체계적인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하여 불교를 올바르게 이해시킬 수 있는 어린이·청소년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통일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할 전문적인 어린이·청소년 지도 인력이 양성되어야 한다. 현재 각 사찰에서 준비중인 여름불교학교와 어린이캠프에 참여할 지도교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청소년 지도인력 확보는 무엇보다 시급하다. 보시금의 최소 10%를 어린이·청소년 포교비로 책정하여 어린이포교에 대한 정책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총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단에서는 △도심사찰의 어린이·청소년법회 개설 의무화 △어린이불교연합회 결성 △사녀와 함께 절에가기 캠페인 전개 △파라다임 지원 확대 △포교 프로그램 개발 △어린이 청소년



◆청소년 종교활동 인구 분포(단위%)

청소년 포교프로 개발 지도 인력 양성도 시급

지도교사 양성 △어린이 청소년법회 지원 △종단차원의 어린이, 청소년 포교자료 및 도서발간 △어린이, 청소년 단체인 교류강화 △유치원-어린이회-청소년회-대불련-청년회-신도회로 이어지는 시스템 개발 등의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선재이벤트 이성훈실장은 “미래의 종교분포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는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포교와 인적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단차원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다양한 포교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어린이·청소년 지도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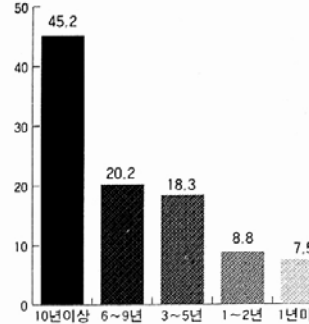
수 있는 공식적인 종단 교육기관부터 개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종교단체의 운영 투명성과 합리성 평가에서 개신교(82.9%), 천주교(80.8%)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데 비해 불교청소년들은 64.7%만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자기 종교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불교 청소년들의 응답이 67%로 개신교(84%), 천주교(74%)에 비해 훨씬 낮았다. 성직자관도 불교 청소년의 경우 이상적인 성직자가 없다(29.9%), 성직자를 존경하지 않는다(10.6%)고 응답한 비중이 타종교인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는 미래의 주인공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생활태도가 앞으로 종교지형을 좌우한다고 볼 때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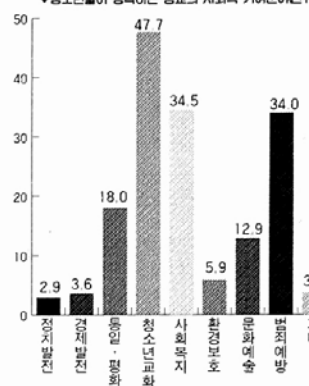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종교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의 신봉기간(단위%)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종교의 사회적 기여(단위%)



어떻게 조사했나

조계종 포교원이 청소년 포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 청소년 종교의식 조사는 지난 해 8월 7일~7월 24일 전국 128개 중·고교 재학생 312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대상 선정은 광역지자체별 청소년 인구 비례에 의해 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했으며, 설문지 직접 배포 및 수거의 방법으로 실시했다. 포교원은 이 조사에 불교를 신봉하는 학생이나 종교학교가 특별한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더라도 조사의 객관성을 강조했다. 설문은 모두 6개 문항으로 구성했으며, 종교의 유무와 종교 생활 실태, 종교에 대한 생각과 응답자의 성향을 조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95%의 신뢰구간에서 오차 범위는 ±1.0이다.

직관의 세계 시어 응축... 불교문학의 절정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선시(禪詩)는 시(詩)와 선(禪)의 만남이다. 선시는 범불교적 종교시가 아닌 불교 선종(禪宗)의 사상과 철학, 그리고 정신적 경지를 표현한 운문문학이다. 시가의 역사는 선종사상이 흥기하기 이전의 중국에 이미 장구하게 흘러왔으나, 그때는 시와 선의 연계가 필요치 않았었다. 그러나 선종사상이 중국에서 유행된 이후부터는 많은 문예가들이 시와 참선의 긴밀한 연계를 맺게 되었다.

선미(禪味) 농후한 시를 읊게 되었다. 명나라 사공도(司空圖)의 운외지치(韻外之致), 미외지미(味外之味) 시론은 사람들에게 명확한 시선일치(詩禪一致)이론을 인식시켰고, 후세 중국 문예 이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송대(宋代)에 이르러 선종은 고도로 발전하면서 더욱 광범하게 유행했고, 사대부에게까지 선의 풍류가 일어 시와 선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대표적 시인으로 당의 왕유(王維), 두보(杜甫), 백낙천(白居易), 한산(寒山), 그리고 송의 소동파(蘇東坡), 황정경(黃庭堅), 염유(嚴羽), 청의 왕사정(王士禛) 등 대가들이 선사상에 심취하여 고격(高格)의 선시를 많이 창작하게 되었고, 이들이 한국이나 일본 사단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언어의 절제와 응축, 그리고 상징을

중시하는 공통점이 시와 선에는 있다. 선은 직관을 중시하고 언어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 초월 언어가 상징으로 나타나면 곧 문학이 되는 것이며, 이런 경우 선종(禪僧)의 계(偈)는 시문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오도(悟道)를 목적으로 하는 불교문학의 절정은 선시이다. 불교적 철학이나 사상을 산문으로 묘사·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 직관적인 면에 있어서의 힘은 선시문학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선을 통하여 얻어지는 정심(靜心)은 물심일여(物心一如)의 경지에서 사물의 속성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시화(詩化)하는 데 촉매작용을 한다. 또 선의 돈오(頓悟) 사유방식은 시 창작에 있어 번득이는 영감을 제공해 준다. 선 체질로 얻어진 무한한 정신세계와 정제된 심리상태는 묘오(妙悟)와 여유, 함축 그리고 의경(意境)을 표현한다.



김형중 명성여고 교장사 문학박사

선어(禪語)의 상징성과 함축, 그리고 논리 구조를 초월한 선구언어(禪句言語)는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 관념을 넘어 무의식 세계, 깨달음의 세계까지 정신세계를 확장하는 창조·혁명적인 언어 구조로 재조각되었다. 선이 시로써 문학이 되었고, 시가 선으로써 사상과 깊이를 더해 갖춘 지고한 격조의 시 세계를 창출하였다. 청대 원호문(元好問)의 말처럼 선은 시인에게 좋은 꽃을 닮아 주었고, 시는 선에게 비단 꽃을 닮아 주었다. 그러나 계송(偈頌)을 시라고 하지는 않는다. 계송은 범어 gatha(伽陀)의 음역인 계(偈)와 풍송(韻誦)을 합성하여 만든 말로 강명하고 짧게 쓴 운문으로, 경전에서 불설이 설해지는 양식과 성질을 열두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는 12분교의 하나이다. 인간의 모든 문화현상은 언어문자로 기록되고 사유마저도 언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언어문자를 떠나 살 수 없다. 선 또한 마찬가지로 소위 불리문자(不離文字)요, 일언현리(因言顯理), 의언진어(依言眞如)이다. 그러나 선가의 언어는 지극히 압축되고 고도로 상징화한 비약·역설적인 반상(反常)의 언어이다. 일언지하(一言之下) 돈망생사(頓忘生事)하고 일초직입(一超直入) 여래지(如來地)하는 촌철살인적(寸鐵殺人) 언어이다. 이러한 전형적 선시의 대부분은 사언, 오언, 칠언의 시 형식만 취했을 뿐 상률(聲律), 압운(押韻), 평측(平仄) 등을 무시하기 때문에 한시에서 요구하는 시문학적 우수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시적 성취를 얻은 선시로는 사대부와의 교류를 읊은 교류시(交流詩), 차운시(次韻詩)가 있다. 자신의 오도 경계를 운수자연(雲水自然)의 풍물에 의탁하여 읊은 우음시(烏吟詩), 산거시(山居詩), 운수시(雲水詩) 등에서는 사대부가 도회에서 얻을 수 없는 묘경(妙境)과 운외지미(韻外之味)를 느낄 수 있다.

<민족의 자주와 단합,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8·15 동시법회> 남북 공동 발원문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우리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통치로부터 광복된 지도 어언 반세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외사도 아닌 외세의 간섭에 의하여 나라와 민족은 돌로 갈라져 54년이라는 긴 세월 분열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분단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기가 교체되는 역사적 시기, 세계가 화해와 번영으로 내닫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 겨레가 서로 갈라져 산다는 것은 불행이며 수치입니다. 하여 온 겨레와 함께 우리 불자들의 절절한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입니다. 우리 모든 불교도들은 조국광복 55돌이 되는 뜻깊은 오늘 남과 북의 모든 사찰들에서 <민족의 자주와 단합,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8·15 동시법회>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겨 오라는 저희들의 한결같은 의지를 다음과 같이 부처님전에 발원합니다. 첫째, 민족의 자주를 우리 민족이 살아나갈 유일한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자기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그 누구도 자기를 대신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나라의 통일문제도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면서 그 실천행을 적극 벌려나가겠습니다. 둘째, 조국통일은 반드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을 토대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반세기이상 분열로 하여 우리 나라의 남과 북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조국통일의 가장 합리적인 방도는 6월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6화(六和)의 정신에 따라 실질적인 조국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남과 북의 모든 불자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는 것은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전제입니다. 우리들은 아집과 사견으로부터 오는 온갖 번뇌망상과 집착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성업에 복종시키며 그 길에서 서로의 협력과 연대, 연합을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우리 민족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돌로 갈라져서는 살 수 없는 유기체와 같아서 이제 더는 갈라져 살 수 없습니다. 20세기 중엽에 시작된 민족분열의 고통을 하루속히 끝내고 우리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쳐주는 것이 우리 불자들과 온 겨레의 의지이고 소원입니다. 이 길에서 남과 북의 모든 불교도들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굳결함이 융합정진을 나아가겠습니다. 조국과 후세에 부끄럼없는 참다운 불자라, 통일보살이 되겠다는 것을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전에서 굳게 서원합니다.

(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서정대